

# 정읍시, 의약·제약으로 산업 영토 확장

### 차세대 동물 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예비 선정으로 제도적 기반 다져 전문기관 연구 성과 제품·산업화 근로자 지원·정주 여건 개선 병행

정읍시가 농생명 중심의 '그린바이오'를 넘어 의약·제약 분야인 '레드바이오'로 산업 영토를 확장한다.

정읍시는 지난해 구축된 그린바이오 인프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고부가가치 레드바이오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연구개발부터 실증·생산·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했다.

그 결과로 지난해에는 디지털·자동화 기반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이 가동을 시작했고 농축산용 미생물 공용 인프라가 준공돼 기업 입주에 본격화됐다.

여기에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공모 선정까지 더해지며 연구와 분석, 실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올해는 이 기반 위에 '레드바이오'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한다.



정읍시가 조성 중인 '바이오식산업센터' 조감도.

이미 '차세대 동물 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예비 선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며 기업 '엔피케이'와 '케어사이드'가 실제 착공에 들어가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연구 성과가 제품화·산업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반려동물 산업을 포함한 바이오 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유치를 추진해 입주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 유치와 함께 근로자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

선을 위해서도 산업단지(산단) 내 공공임대형 기숙사를 건립, 근로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이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그린바이오와 레드바이오의 연계는 정읍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연구기관의 성과가 기업의 실질 성장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시, 농작물재해보험 90% 지원

### 사과·배 등 과수 4종 다음달 6일까지 가입 신청

정읍시가 사과, 배, 단감, 뽕은감 등 과수 4종 재해보험을 대상으로 3월6일까지 '2026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접수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와 병해충 등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보험이다.

특히 과수 농가의 경우 한번의 재해로도 연간 수확량이 급감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가능한 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하다.

시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가입비의 90%를 지원한다.

보장 내용 중 열매의 경우 수확하는 적과 이전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피해를 보장하며 적과 이후에는 태풍, 우박, 화재, 지진, 집중호우, 일소 피해(햇볕 데임), 가을 동상해 등 수확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폭넓게 보장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 위험도 날로 커지는 실정"이라며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한 경영 안정을 위해 꼭 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수박, 명품 브랜드 '인증 3관왕' 도전

### 지리적 표시 등록 이어 GAP·저탄소 인증 추가...신뢰도 구축

고창군이 '고창 수박 명품화 사업'을 기반으로 고창 수박의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며 '인증 3관왕' 달성에 도전한다.

고창군은 지난해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고창 수박의 원산지를 국가로부터 공식 인증받으며 브랜드 신뢰도를 공고히 했다.

지리적 표시 제도는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과 품질 특성을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 고창 수박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올해는 여기에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과 저탄소 인증을 추가해 안전성과 환경 가치까지 갖춘 프리미엄 농산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생산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친환경 재배 기반을 강화해 소비자가 '고창 수박'이라는 이름만으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재배 단계부터 수확, 선별,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품질관리와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균일한 당도와 식감, 뛰어난 품질을 유지해 최고급 명품 수박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5월 하순부터는 철저한 선별 과정을 거친 최상급 고창 수박을 한정 판매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성동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리적 표시를 기반으로 GAP 인증과 저탄소 인증까지 더해 인증 3관왕을 달성 고창 수박을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라며 "생산 농가와 함께 철저한 품질관리와 기술 지원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안겨주는 명품 농산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시설 조성 본격화

### 국·공유 재산 교환 등 난제 해결 내년 개교...관계 인구 유입 기대

남원의 옛 서남대학교 부지가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로 부활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최근 전북대와 함께 남원글로벌캠퍼스에서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 조성 출범식'을 시작으로 캠퍼스 조성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서남대 폐교로 남원시는 연간 260억원에서 344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고 주변 상가와 원룸촌 등은 80% 이상이 문을 닫는 공동화 현상을 겪었다.

남원글로벌캠퍼스 조성을 통해 시와 전북대는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남원에 국립대학이라는 지속 가능한 교육 거점을 구축하면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활력 회복, 나아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마련하게 됐다.

또 기획재정부,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 등 까다로운 난제들을 해결하며 강력한 추진 동력도 확보했다.

전북대학교는 이미 20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글로벌 확장 가능성까지 입증했고 첫 학기 모집에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10여개국 268명 지원자가 몰렸다.



13일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 후 최경식(왼쪽 여섯번째) 시장과 양오봉(왼쪽 일곱번째) 전북대총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환호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시는 남원글로벌캠퍼스 공식 출범에 따라 앞으로 전북에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 및 기업 관계자 등 2000여명의 관계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원글로벌캠퍼스 첫 입학생들은 정식 개교 전까지 전주 캠퍼스에서 첫 학사 일정을 시작하며 2027년 남원 부지 리모델링과 캠퍼스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남원으로 터전을 옮기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글로벌캠퍼스는 폐교 부지를 활용한 전국 유일의 지역재생 모델로 정부의 큰 주목을 받았다"라며 "어려운 행정 절차를 마친 만큼 2027년 개교까지 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남원의 미래를 여는 변곡점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남원시, 경찰·소방 공무원 예우 강화

### 시민 생명·안전 위해 헌신...교통공원 숲속야영장 사용료 30% 감면

남원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예우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관련 기관 유치까지 꾀한다는 구상이다.

남원시는 지역 대표 힐링 명소인 '교통공원 숲속야영장' 시설 사용료를 현직 경찰·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30% 감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남원시 교통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조례'의 감면 규정의 구체화에 따른 것이다.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감면 혜택은 야영장 내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일반 데크 및 파쇄석 사이트 3만 원~2만 1000원, 트레일러 사이트 3만 3000원~2만 3000원,

돔 하우스(최대) 7만 원~4만 9000원으로 인하된다. 주중·주말 구분 없이 3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객이 온라인 예약 후 현장에서 담당자가 신분을 확인하면 감면액만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즉시 환급한다. 방문객의 지역 상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남원시는 이번 정책에 대해 제2중앙경찰학교와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의지를 나타내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단순 기관 유치를 넘어 제복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존중받고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들이 교통공원의 맑은 공기 속에서 위로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